

# 불교의 미래 '응용불교' 서 찾자

## 2005 한국교수불자대회 현장

"미래불교의 방향은 당연히 '응용불교'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다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불교가 바른 길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김용표) 주최로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에 걸쳐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린 2005 한국교수불자대회에서 기초발제에 나선 정병조 교수(동국대 윤리학과)는 오늘날 불교가 안고 있는 과제를 명확히 제시했다. 불교적 가치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메워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이제는 불교가 '응답'해야 한다는 것.

김용철 교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홍광표 교수(동국대 조경학과) 등도 같은 맥락에서 불교를 들여다보았다.

계절을 지키지 않는 현 풍토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발언을 연 정 교수는 재가불자들이 오계를 준수토록 하는 재가 윤리현장과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범망경>에 제시된 48경계 가운데 십중(十重)의 마지막 다섯 조항을 재가의 오계로 윤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현대사회와 맞는 오계로 '삼보를 공양하라' '승가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남을 헐뜯지 말라' '재물과 진리를 널리 베풀라' '늪우치는 중생을 용서하라' 등을 새롭게 제시했다.

정치·경제분과 발제에 나선 김용철 교수는 '불교의 설득커뮤니케이션 체계

연구'에서 경전의 내용 속에는 중생교화와 설득방법이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학 분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불교 설득커뮤니케이션 발전을 위한 방법으로 설법오려(진리에 부합하는 언설)를 통해서 상대의 성질에 따라 깨달음에 이르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자비와 대비의 마음으로 설법하는 것의 정신을 제시했다.

석가모니 부처님 제세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깨달음을 성취한 제자와 고승대덕에 의하여 설법오려의 정신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교수는 "최근 직접적인 설



2005 한국교수불자대회에서는 신행이 강조돼 참가자들이 불자로서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 전공 관계없이 불교적 가치 토론·실행 실수

정병조 교수 '재가윤리현장 제정·재가五戒 수정' 제안

김용철 교수 설득커뮤니케이션 연구 필요성 역설

법뿐만 아니라 대중매체를 통한 간접적인 설득커뮤니케이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수행력과 교화력을 갖춘 스님과 포교사들이 보다 많이 배출되고 설득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인적 설득, 소집단 설득, 조직 설득, 대중적 설득 등 유형별 설득방법에 대한 연구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

션과 수행을 통한 내적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경전에 근거한 설득메시지는 이미 갖추고 있으므로, 커뮤니케이션을 양성하고 효과적 전달방법을 연구해야 한다는 논지다.

홍광표 동국대 교수는 한국사찰은 사람들의 신체·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웰빙환경의 전행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사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웰빙환경으로 홍 교수는 △생태적 수용능력과 산수의 상관성을 고려한 입지선정 △땅의

## 여성주의 불교학 논문 눈길

동국대 후기 박사 논문... 불교관련 3편 나와

### 조승미씨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여성의 불교수행을 조망한 박사논문이 나와 불교수행 담론이 남성중심성을 탈피하는 데 자극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승미씨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불교수행론 연구'라는 논문으로 오는 8월 26일 동국대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다. 이창숙씨의 박사논문 '인도불교의 여성불사상에 대한 연구(1994)' 이래 10여년 만에 탄생한 여성주의에 입각한 불교학 박사논문이다.

이번 박사논문의 의의는 불교의 가부장적 제도와 관습을 주 대상으로 삼는데서 한 걸음 나아가 불교수행에서의 여성의 경험까지도 연구 대상으로 적극 수용했다는 데 있다. 이를 근거로 조씨는 "불교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교설체계가 젠더(gender)중립적

이지 않으며 오랫동안 남성중심적으로 해석된 산물"로 규정하며 "불교수행론이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했다.

종합적인 시각 형성을 위해 반야적 관점과 방편적 관점을 취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조씨는 "고정적 실체가 없다는 공(空)에 대한 인식을 중시하는 반야사상과 진리가 현실세계에서 경험되는 측면을 중시하는 방편사상이 보살에게는 동등하게 중시된다"는 데 착안해 반야적 관점과 방편적 관점을 연구에 도입했다.

조씨에 따르면 반야의 관점에서 본 질적이고 불변하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본질이나 본성을 갖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에서 여성에게 부과된 '허위'가 해제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성(空性)에 대한 지혜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유지돼 온 남성중심성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여성의 경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여기서 방편적 관점이 요구된다는 것이 조씨의 주장이다.

조씨는 불교경전, 한국불교사 기록 그리고 현대여성의 수행기 등을

통해 불교수행과 관련된 여성에 대한 설명과 여성들의 경험 등을 찾아냈다.

불교수행이 가부장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 조씨는 △보살핌의 공동 수행화 △일상언어를 사용한 불교수행론 정립 △여성의 경험을 잘 표현되고 소통될 수 있는 매체와 장르의 개발 △여성들을 지도하는 여성스승의 제도화를 제안했다.

특히 보살핌의 공동수행화란 여성의 전유물로 인식되던 보살핌의 역할을 남녀 공동의 역할로 변화시킴으로써 여성

에만 전가되는 성역할 의무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 김영진 '장타이엔...' 박영철 '영산재...'

○... 한편 동국대 불교학과에서는 조승미씨의 논문 외에도 김영진씨의 '장타이엔(章太炎)불학에서 개체와 윤리론' 박성철씨의 '영산재의 문화적 활용모델 연구' 등 2편의 박사논문이 함께 통과했다.

김영진씨의 논문은 개체보다 집단이 강조된 중국 근대기를 살면서 불학에 입각한 개체의 실천적 삶을 고민했던 장타이엔의 사상을 조명했다.

김씨는 "번뇌의 현실을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불교적 의미에서의 자기수행"이라고 강조하며, 불교의 논리가 현실의 윤리가 되기를 열망하며 실천적 삶을 추구한 장타이엔에게서 불교의 현실적인 가치를 확인했다.

박익순 기자 info@buddhapia.com

## 예수-돈오돈수 제자-돈오점수

서명원 교수, 신약성서 깨달음 분석

"신약성서는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의 두 가지 사상을 모두 내포하고 있으며, 전자는 예수에게 후자는 그 제자에게 해당된다"



불교의 전유물인 것만 같은 돈오돈수와 돈오점수 사상을 신약성서에 적용한 흥미로운 논문이 발표됐다. 서명원 서강대 교수(종교학과·사진)는 최근 발간된 보조사상연구원 학술지 <보조사상> 제24집에 기고한 논문 '비교종교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불교의 돈점논쟁'에서 진리에 대한 체현 구조로서의 돈오돈수·돈오점수를 신약성서에서 읽어내고, 이를 통한 성철 스님 사상 조명을 시도했다.

서 교수는 예수가 성령을 가득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신약성서의 내용을 돈오의 순간으로, 체현 후의 이타행(後修行)으로 해석하며 "신약성서에서 돈오돈수의 체현은 예수에게만 나타나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예수의 제자들의 깨달음은 예수처럼 단박에 이뤄지지 않는다. 서 교수에 따르면 "제자들은 스승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제자가 되고, 스승과 같은 인물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을 돈오라 볼 수 있지만, 그 후에도 더 오랜 시간을 두고 꾸준히 닦아야 하는 경우가 신약에 자주 등장한다는 점에서 돈오점수적"이다.

이 같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부터 서 교수는 "스승 예수가 돈오돈수하지 않았다면 돈오점수하는 제자들이 어느 방향으로 수행해야 하는지 지도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신약성서 안에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의 보완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여기서 나아가 한국불교사의 돈점 논쟁을 재해석했다. 즉, 기독교에서 돈오돈수가 예수에 한정되고, 나머지 제자들은 돈오점수의 과정을 겪는 것처럼 일반적인 중생을 염두에 둔 보조 스님은 돈오점수의 가르침을 펼친 반면, 자신의 체현을 다른 사람에게 권장하려 했던 성철 스님은 돈오돈수를 강조했고, 그것이 보조 스님에 대한 극단적인 비판으로 이어졌다는 것.

서 교수는 "성철 스님의 배타적인 진리관은 지나치게 불균형적이었지만, 돈오돈수적 패러다임의 우수성을 상기시키는 데는 효과적이었던"이라고 지적하며, "성철 스님의 극단성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돈오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 한국불교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익순 기자

\*기사내용 '박영준 교수의 과학기술과 불교' 쉽니다.

## 중요무형문화재 해공스님 영산의식 비디오 시리즈

전통불교의식대학 학장이신 해공스님께서 불교의식비디오를 아래와 같이 촬영 제작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필요한 의식비디오가 있으면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령 / 관육
2. 상주권공 지장 불공의식
3. 상용영반
4. 화청 ①②
5. 구병시식
6. 관음시식
7. 점안의식
8. 방생의식
9. 사물 다루는 법
10. 안택
11. 시다리
12. 산신불공
13. 미타불공
14. 신중불공
15. 관음불공
16. 지장불공
17. 삼대화상증명불공
18. 중사관육
19. 중사영반
20. 가사불사 이은식 ①②
21. 39위신중작법
22. 간단한 신중작법
23. 전통조석예불
24. 천수경 / 장엄염불
25. 상주권공, 각배, 영산염불
26. 사시상단예불
27. 작법무(복청계천수바라)
28. 작법무(사방찬소리도랑계)
29. 작법무(육건만다라선승다계)
30. 작법무(향수니얼 사다라니)
31. 교재 2권 80,000원

●비디오 각 25,000원

### 제품구입처

- 전통불교의식대학 중무소 062)362-8604
- 해공스님 직통전화 011-624-8604
- 계좌번호 : 농협 641010-56-000296 (노연숙)

##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범음범패 하계교육 대특강 안내

1. 자격 : 스님 및 교인 포교사 일반불자 불교에 관심이 있는 자
2. 일자별 교육내용
  - 8월 29일: 사물다루는 법(북, 태징, 목탁, 요령) 39위 신중작법 외
  - 8월 30일: 구병시식, 안택기도 외
  - 8월 31일: 화청(회심곡), 중사관육 점안의식, 용왕불공, 방생의식 외
  - 9월 1일: 시다리(상가염불하는법), 바라춤 중사영반
  - 9월 2일: 요잡바라, 천수바라, 관음시식 외
3. 교육기간 :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4. 교육비 (교재비 별도)
  - 1) 200,000원정(숙박포함)
  - 2) 1일 수강사: 50,000원
- ※ 비디오 전편 구입시 교육 무료
5. 모집일시 : 8월 29일 오전 10시
6. 교육장소 : 본 대학 강의실
7. 준 비 물 : 가사, 장삼, 필기도구, 세면기
8. 문 의 처 : 전통불교의식대학 중무소 062) 362-8604 011-624-8604
9. 계좌번호 : 농협 641010-56-000296 (노연숙)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59-14

## 불교 전통의식대학

학장 노혜공

## 2005년 송강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신입생 모집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사방세계에 가득 하길 기원하며.....

고(故)박송암스님께서 열반하시기 10일전 소승을 불러 스님께서 정리해놓은 여러 자료와 범패의 것소리 및 범음을 10시간가량 녹음해 주시면서 범패의 맥을 잇도록 당부 하셨습니다. 고(故)박송암스님의 유지를 받들고자 소승이 전승한 송암스님의 범패를 후학들에게 계승하기위해 송강불교전통의식교육대학을 설립하고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과목

학 과	과 목	모집인원	수업기간
기초반	도량석, 종성, 예불, 각단불공	00명	6개월
중급반	49재, 천도의식 (시련, 대령, 관육, 관음시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00명	6개월
특수반	복청계,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 사다라니, 나비춤	00명	6개월
연구반	예수재, 수록재, 점안의식	00명	6개월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사진 반명함판 2매

- 교육기간 : 각반 주 1회 2시간

- 접수기간 : 수시 접수

- 문 의 처 : 우편번호(456-894)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송강불교의식교육대학장 오송강 합장

☎ 031)676-5929, 핸드폰 : 011-9677-4877

